

# 인간중심의 공간 위한 '환경창조'

국내최초의 본격연구서 「환경조각」펴낸 崔秉尙교수

1984년 미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11층 이상의 건물과 건축면적 1만㎡ 이상의 규모로 신축되는 건물은 공사비의 1% 이상 금액에 상당하는 미술품을 설치해야 한다는 환경조형물에 대한 관계법규가 권장사항으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이래, 여러 형태의 조형물이 도심지 곳곳을 장식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환경조형물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극히 미비한 실정이었고, 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작품수의 증가에 비해서는 '수동적인 감상자'의 수준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국내상황에서 조각가 崔秉尙(54, 이화여대 조소과 교수)씨가 최근 펴낸 「환경조각」(미술공론사刊)은 이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전문연구서로서 매우 의미있는 작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 3개국 9개도시 돌며 직접 촬영해와

1986년 여름부터 시작, 3년간에 걸친 해외자료 수집작업으로 얻어진 4백여점의 컬러사진을 수록하고 있는 이 책은, 각 작품마다 美文의 작품해설과 함께 각 도시에서 조사한 설문지 분석이 내용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환경조각의 발상지인 시카고를 비롯하여 뉴욕,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터론토, 오타와, 몬트리올, 도쿄 등 3개국 9개도시를 돌면서 직접 작품을 관찰, 촬영하고 대표성을 띠 수 있는 설문조사서를 벌이는 한편, 존페이(John Pai)나, 리처드 버거(Richard Berger) 레이몬드 그랑빌 베거(Raymond Granville Varger)와 같은 작가들을 만나 그들의 환경조각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는 등 '종합검증방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최교수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경의 나라, 그리고 서울과 비슷한 도시를 물색한 끝에 최종적으로 9개 도시를 선택했습니다. 캐나다를 찾았을 때는 추위 때문에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아 애를 먹었지요. 할 수 없이 외투 속에 넣어 체온으로 녹여주고 다시 사진을 찍는 작업을 반복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동안 찍은 사진만도 4,5천장쯤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한다.

최교수의 성실성은 책에 수록된 작품사진에서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한 작품을 여러 각도에서 포착, 그 작품이 하나의 환경조각작품으로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를 주위 환경과의 관계를 통해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각품이란 기본적으로 입체적인 것 아닙니까? 어느 한 면만을 관찰해서는 전체적인 감상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환경조각품의 특수성, 즉 주위환경과의 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한 작품당 여러장의 사진을 수록했습니다."

흔히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빨간 우체통이나 전화박스, 가로등, 여러 형태의 간판들, 심지어 걸어다니는 사람들까지 하나의 '거리가구(street furniture)'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볼 때, 한 개인의 시점에서는 "자기 몸 이외의 것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말은 곧 자기 이외의 타인에게는 자신도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의 말은 설득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작업은 "새로운 또는 보다 나은 환경조각품을 위해서가 아니라 '환경'을 창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히는 그는 현대도시의 다양성에 대응하기 위한 '단순성'을 강조한다. 그가 말하는 단순성이란 모든 환경조각품들이 '인간중심의 공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승화될 때 완성되는 '통일성'을 의미한다.

## "환경조각 설치하면 공간의 질이 변한다"

이 책은 "외국의 선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상호 비교할 자료가 근거있게 추출되어야 하고, 타당하고 객관적인 표준을 형성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머리말과 함께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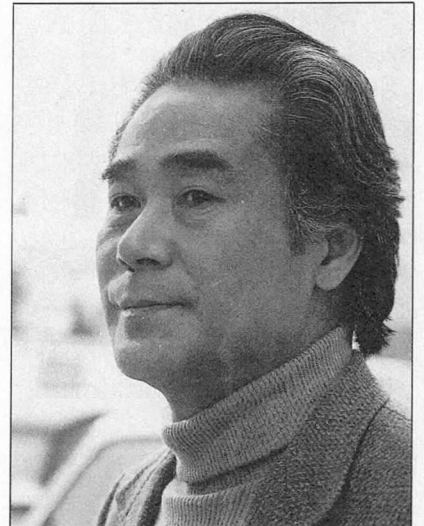
서론에는 문헌, 작품, 관찰, 질문지, 작가면접 등 연구의 '기본도구'와 "동일화된 공간으로서

의 현대도시 일반을 대상으로 하여 인간과 환경, 내부공간과 외부공간, 외부 환경공간, 도시환경과 조형공간 등 공간과 시각환경과 조형에 의한 환경창조에 한정"시킨 이론적 배경, 그리고 질문지 작성의 성별, 연령별, 직업별 분포도와 면접대상, 답사내용 등에 관한 도표가 수록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환경과 조형공간에 대한 다각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3장에서는 그가 시도한 250관점에서의 종합검증방법 — 객관주의적 방법, 주관주의적 방법, 실증주의적 방법의 종합, 균형 — 을 적용한 도시환경과 조형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현대 도시환경을 다양성, 단순성, 인간성, 전달성, 쾌적성, 총체성의 측면에서 고찰함으로써 도시 자체의 현상과 그 속에서 생활하는 인간의 환경적 특성을 그 본질성향(도시: 구조성, 물리성, 기계성, 인간: 표현성, 복지성, 독창성)과 대비시키고 있다.

4장은 이 연구서의 1차적 자료가 되고 있는 실제 작품사진과 해설, 질문지와 면접분석 결과를 싣고 있는데, 질문지 분석은 작가의 인지도, 작품의 시각효과, 작품과 도시공간과의 조화, 도시환경조각에 대한 중요성 등 총 13개 항목에 걸쳐 실시되었다. 이밖에도 충실한 국내외 참고문헌을 비롯해서 세계 6개국 24개 도시의 환경조각품 53점을 확보로 싣고 있다.

이상의 연구분석결과를 토대로 그가 제시하고 있는 결론은 "도시외부 환경에 조각을 설치하면 그 환경공간의 질이 변화된다"는 것, 또한 "당해 종합공간의 다양한 조형적 특성에 준거한 새로운 심리적 환경으로 창조된다"는 자신의 가설이 검증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밑받침해 주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조사자료들 중에는 현재 환경조각의 '과도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의미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조형요소중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공간(29.8%), 운동, 양감의 순이었고, 형태는 추상형태가 76.7%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시카고, 워싱턴, 도쿄는 전 작품이 추상형태라는 점이 새롭게 발견되었다. 표현재료는 스텐레스, 무광택 표면처리가 단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캐나다의 경우에는 기후풍토의 특성으로 눈과 얼음을 활용한 작품이 눈에 띈다. 또한 질문대상자의 70.3%가 환경조각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반면, 조각과 도시공간과의 조화에 대해서는 35.2%가 '보통'이라는 의외의 응답을 함으로써 외국의 경우에도 환경조각에 대한 미흡함이 지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시카고나 워싱턴은 전작품이 추상형태

도시환경조각에 대한 총체적 의견으로서 최교수가 제시하고 있는 의견은 "공공작품의 위임에 지나치게 많은 정치적, 상업적 영향이 개입되고 있다. 환경조각은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좋은 방법이며, 또한 예술가의 재능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정당한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창작현상의 주체인 작가, 건축주, 관리자의 도시환경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택은행 본점과 국립현대미술관의 환경조각품 설치경험이 있는 그는 "이제 우리 외부공간을 버려진 공간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식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련의 예술사회학이 바야흐로 국내에서도 폭넓게 수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예술'과 '사회'의 효과적인 상승작용의 가능공간으로서의 환경조각에 거는 기대는 자못 크다고 하겠다.

환경조각품의 인지도의 문제와 관련하여, 그것의 '작품화'는 수용층의 '참여'까지를 포함해야만 작품의 '완성도'를 거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작품의 시장성과 수용층의 태도, 작가양성 등의 문제에 대한 그의 지적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일 것이다.

— 정소연 기자